

Today's News Clip

# 오늘의 주요기서

2023년 12월 11일 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목 차

|        |     |                                     |    |
|--------|-----|-------------------------------------|----|
| 강원도민일보 | 01면 | 강원FC 구사일생 ... K리그1 잔류 확정            | 1  |
| 강원도민일보 | 10면 | 강릉시민 강원FC 1부 잔류 '1등 공신'             | 1  |
| 강원도민일보 | 19면 | 벼랑끝 격전 직관 강원도민·나르샤 함성 '들썉'          | 2  |
| 江原日報   | 12면 | '구도 강릉' 1만 관중 응원 승리 이끌었다            | 2  |
| 강원도민일보 | 온라인 | 원주시 아이행복마을, 고백데이 감사의 날 행사           | 3  |
| 강원도민일보 | 02면 | 도의회 예결위, 내년 예산안 7조5862억원 의결         | 4  |
| 江原日報   | 02면 | '농업 14억 증액' 道 내년 예산안 통과             | 5  |
| 강원도민일보 | 03면 | 민주 도당 여성위 정치토론회                     | 6  |
| 강원도민일보 | 21면 | "청소년 시절 스포츠·문화 경험, 한중일 관계 개선 도움"    | 6  |
| 江原日報   | 11면 | 부동산·재테크 전문 노하우 배워                   | 7  |
| 江原日報   | 10면 | 춘천시청 성수동문 송년의 밤                     | 8  |
| 강원도민일보 | 04면 | 오늘 양양서 청년과 함께하는 강원농업 미래 워크숍         | 8  |
| 江原日報   | 21면 | “하심공경 자세로 이웃 섬길 것”                  | 9  |
| 강원도민일보 | 온라인 |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회장 이·취임식 실시        | 10 |
| 江原日報   | 온라인 | 2023 춘천 야구인의 밤 및 호반리그 시상식 성황        | 11 |
| 江原日報   | 온라인 |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12 |
| 강원도민일보 | 15면 | [동정] 이병선(왼쪽) 속초시장·진종호(양양) 도의원       | 12 |
| 江原日報   | 21면 | [동정] 김용복(고성)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 12 |
| 강원도민일보 | 01면 | 특별 자치시·도 곳곳 출범 ... 특별한 강원 실종 우려     | 13 |
| 江原日報   | 01면 | '불황의 덫' 개인도 지자체도 빚더미                | 14 |
| 江原日報   | 02면 | '불황의 덫' 개인도 지자체도 빚더미                | 14 |
| 강원도민일보 | 08면 | "춘천지역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늘려야"            | 15 |
| 강원도민일보 | 09면 | 원주푸드 인증 축산물·가공품 확대 나선다              | 15 |
| 江原日報   | 02면 | 강릉·삼척·화천에 공공임대주택 250세대 건립           | 16 |
| 강원도민일보 | 04면 | 가을부터 오락가락... 12월 때아닌 봄 날씨 '이상기후' 실감 | 16 |
| 강원도민일보 | 17면 | [사설] 춘천 주요 현안 연내 마무리해야              | 17 |
| 강원도민일보 | 17면 | [사설] 자살사망률 3위 안전망 강화를               | 18 |

|      |     |                                  |    |
|------|-----|----------------------------------|----|
| 江原日報 | 19면 | [사설] 탄광 문 닫는 태백·삼척,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 19 |
| 江原日報 | 19면 | [사설] 춘천시-6개 대학 ‘교육특구’ 조성에 거는 기대  | 20 |

##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11일 (월)

종합 01면

## 강원FC 구사일생...K리그1 잔류 확정

강릉서 승강PO 2차전 2-1 승

강원FC가 1만여명의 도민 관중 앞에서 '구사일생'으로 K리그1 잔류에 성공했다. 강원FC는 지난 9일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김포FC와의 '하나원큐 K리그1 2023' 승강 플레이오프(PO) 2차전에서 2-1로 승리했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승강 PO 1차전에서 0-0으로 비긴 강원은 최종성적 1승

1무로 K리그1 잔류를 확정지었다.

이날 김진태 도지사, 권성동 국회의원,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김천수 도민회중앙회장, 김홍규 강릉시장, 이병선 속초시장 등도 경기를 관람하며 응원에 나섰다. 김지사는 경기 직후 "멋진 승부를 펼쳐준 우리 선수단이 자랑스럽다. 특별 보너스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예섭

▶관련기사 10·19면

##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11일 (월)

지역 10면

## 강릉시민 강원FC 1부 잔류 '1등 공신'

시즌권 87% 구입 '구도 강릉' 입증

강원FC가 K리그 1부 잔류에 성공한 승리의 원동력은 강릉시민을 비롯한 도내 축구팬들의 응원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한 몫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원FC는 지난 9일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 2023 승강 플레이오프(PO) 2차전 홈 경기에서 김포FC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며 1부 리그에 남게 됐다.

이날 경기에는 김진태 도지사, 권성동 국회의원, 권혁열 도의장, 신경

호도교육감, 김홍규 강릉시장, 권영만 강릉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사회단체장, 시민 등이 대거 참석해 응원전을 펼쳤다. 특히 이번 경기는 1부 리그 잔류나 2부 리그 강등이냐의 사활을 건 한판 승부여서 경기 전부터 관람객이 줄지어 입장해 공식 관람객수만 1만130명에 달했다.

강릉시민들의 남다른 축구 사랑은 입장객 수가 대변해 주고 있다. 강원 전사들을 응원하기 위해 실시된 올해 시즌권 총 판매량 1만1571장 가운데 1만102장(87.3%)을 강릉시민이 구입했다. 강릉 홈경기 총 10경기에 대한 유료관중이 8만5164명으로 경기당 평균 8517명을 기록하는 등 구도(球都) 강릉을 입증했다.

홍성배



2023년 12월 11일 (월)

스포츠 19면

## 강원도민일보

## 벼랑끝 격전 직관 강원도민·나르샤 합성 ‘들썩’

1만130명 찾아 역대3번째 유료관중

김진태 지사 포함 도내 인사 총출동

벼랑 끝에 있던 강원FC가 잔류의 드라마를 쓰기까지 나르샤를 비롯한 도민들의 거대한 합성이 있었다. 강원FC가 강등의 가장 큰 고비를 겪었던 경기는 수원삼성과 리그 최종전, 김포FC와 승강플레이오프(PO) 1, 2차전 등 3경기다.

나르샤를 비롯한 도민들은 최종 목표인 잔류를 위해 3경기에서 응원석을 가득 메우고 열띤 응원을 보냈다. 수원전에서는 4000여명이 원정석을 가득 메워 홈팬들에게 뒤지지 않는 열성적인 응원으로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었다. 김포FC와의 승강 PO 1차전에서는 원정석 675석이 전석 매진되는 기염을 토했다. 강원FC에 대한 팬들의 관심과 열정은 승강 PO 2차전에서 특히 더 뜨거웠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자료에 의하면 강원의 올 시즌 평균관중은 6461명이다. 하지만 이날 홈경기를 찾은 관중은 1만130명으로 이는 올 시즌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회 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권성동 국회의원과 기관단체장들이 지난 9일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강원FC 승강플레이오프 2차전 강원FC와 김포FC 경기를 보며 응원전을 벌이고 있다.

역대 세 번째 강원 홈경기 최다 유료 관중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도 위 3경기를 직접 관람하며 선수단에 힘을 불어넣었다. 김 지사는 “K리그1 잔류가 걸렸기 때문에 모든 일정을 뒤로하고 달려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시즌 K리그1 잔류를 힘들게 이뤘다. 내년에는 경기력을 배가시켜서 이

렇게 12월에 애태우게 하는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축전을 통해 “춘천시민들을 대표해 강원FC의 승리를 축하한다”며 “갑진년 새해에는 청룡의 기운으로 우리 오렌지 군단이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하길 기원하며, 내년 봄, 춘천에서 그 시작을 열정으로 맞이하겠다”고 전했다.

심예섭 yess@kado.net

## 江原日報

2023년 12월 11일 (월)

지역 12면

## ‘구도 강릉’ 1만 관중 응원 승리 이끌었다

강원FC, K리그1 잔류 성공... 강릉지역 축제 열기  
팬·선수 모두 기쁨 나눠... 시 전폭적인 지원 약속

강릉시민의 뜨거운 응원 속에 강원FC가 구도(球都) 강릉에서 K리그1 잔류에 성공했다.

강원FC는 지난 9일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 2023’ 승강 플레이오프(PO) 2차전 김포FC전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며 K리그1 잔류를 확정 지었다.

강원은 2021년 승강 PO 당시에도 대전하나시대를 상대로 4대1 역전승을 거뒀

던 강릉에서 다시금 극적인 드라마를 완성해냈다.

이날 경기에는 유료 관중 집계로 도입한 2018년 이후 강원 역대 유료 관중 수 3위인 1만 130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았다. 이번 시즌 강원의 강릉 홈 10경기 평균 관중 수는 8,517명으로, 이 중 3경기에서 1만명이 넘는 관중이 운집했다.

또 이번 시즌을 앞두고 강릉시에서는 ‘강원FC 시즌권 단체구매’ 릴레이가 이어지며



◇지난 9일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2023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PO) 2차전 강원FC 대 김포FC의 경기에서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권성동 국회의원, 김홍규 강릉시장, 이병선 속초시장 등 내빈들이 열띤 응원을 펼쳤다. 강릉=권태명기자

시즌권 총 판매량 1만1,571장 중 87.3%인 1만102장을 강릉 시민이 구매하기도 했다.

잔류가 확정되자 강릉시민

과 팬들은 한참 동안 경기장을 떠나지 않고 운정환 감독과 선수들에게 열렬한 환호를 보냈으며, 선수들은 강원FC 공식

서포터즈 ‘나르샤’와 함께 응원석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며 잔류의 기쁨을 나눴다.

뛰어난 경기장 관리로 한 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그린스타디움’ 상을 받기도 했던 강릉시는 향후에도 강원FC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정윤식 시 체육과장은 “강원FC가 다가올 시즌에 더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잔디 관리 등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에도 강릉시민들의 더 큰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릉=류호준·권태명기자



##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10일 (일)

지역

## 원주시 아이행복마을, 고백데이 감사의 날 행사

권혜민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아이행복마을(관장 윤정진)은 최근 복원노인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원강수 시장,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자와 후원자가 함께하는 고백데이(Go·Back·Day) 감사의 날’ 행사를 가졌다.



▲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아이행복마을(관장 윤정진)은 최근 복원노인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원강수 시장,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자와 후원자가 함께하는 고백데이(Go·Back·Day) 감사의 날’ 행사를 가졌다.

khm29@kado.net

##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11일 (월)

종합 02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무철)가 지난 7일 시작한 2024년도 강원도 예산안 조정을 18시간 논의 끝에 8일 오전 4시 30분쯤 마쳤다.

## 도의회 예결위, 내년 예산안 7조5862억원 의결

## 농림수산위 예산 19억여원 증액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무철)는 47억6600만원을 조정한 7조5862억원 규모의 내년 도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지난 8일 의결, 본회의에 상정했다.

감액은 △강원연구원 운영 3억원 △농촌관광사업 경쟁력 강화 2억8000만원 등 13개 사업이다. 예결특위는 기획조정실 일반예비비에서 35억8892만원을 감액했다.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이 24개 사업 19억1442만원 규모로 가장 크게 늘었다. 여성농업

인 노동경감 지원 2억40만원,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 5억원 등을 증액했고, 여성농업인 들녘별 화장실 설치 지원 50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했다. 농업기술원 예산은 당초 1억7129만원에서

5억2429만원으로 3억5000여만원 증가했다. 이무철 예결특위 위원장은 “최대한 농민 요구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11~13일까지 도교육청 제2회 추경안 및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한다. 도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설화



江原日報

2023년 12월 11일 (월)

종합 02면

# ‘농업 14억 증액’ 道 내년 예산안 통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농업 예산을 증액하는 내용을 담은 강원자치도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지난 7일 오전 7조 5,862억원 규모의 강원자치도 2024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에 돌입, 18시간가량의 논의 끝에 조정을 마무리했다. 예결특위는 지난 8일 새벽 4시40분께 일반회계 기준 47억6,652만원이 조정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상임위원회별로는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이 24개 사업 19억1,442만원 규모로 가장 크게 늘었다. 과다 삭감돼 농림수산위원회가 심사 거부했던 농업기술원 예산도 증액됐다. 농업 예산은 세부적으로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 5억원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 2억40만원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1억4,960만원 △옥수수 증자생산 1억2,000만원 등이 올랐다.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 지원(9,200만원), 여성농업인 들녘별 화장실 설치 지원(5,000만원) 사업 등도 신규 편성됐다.

반도체 산업기반 육성, 바이오헬스 산업 고도화, 미래차산업 생태계 조성 등 김진태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려는 미래 먹거리 사업 예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무철) 제5차 회의가 지난 8일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 도의회 예결위 18시간 진통 끝 의결... 농기원 예산 증가 도 신청사 건립기금은 기금 내 예치금 전환 증액 편성

은 그대로 세워졌다. 다만 △강원연구원 운영지원 3억원 △농촌관광사업 경쟁력 강화 2억8,000만원 △그린바이오 선도기업 육성 1억500만원 △무역향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1억원 등은 삭감됐다. 기획조정실 일반예비비에서는 35억8,892만원을 감액했다. 도 신청사 건립기금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계획이 변경

되면서, 신청사 기반시설 보상비 등을 감액하고 이를 기금 내 예치금으로 전환해 증액 편성하는 내용의 집행부 제안사항을 수용했다.

이무철 예결특위 위원장은 “세수결손으로 어려운 여건 속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되 일부 사업 조정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지역 경제 활력과 도민 복

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한수 도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 예산 편성에 고민이 많았지만, 심도 있게 심사해주신 데에 대해 감사하다”며 “민생 경제 활성화와 강원자치도 미래를 만들어가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11일부터 도 교육청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 본심사를 진행한다.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



## 강원도민일보

민주 도당 여성위 정치토론회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선배 여성 당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여성이 대표성 확대 방안 등 여성정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여성위원회(위원장 정유선)는 지난 8일 원주 아모르컨벤션웨딩홀에서 '여성정치토론회-후배가 묻고, 선배가 답하다'를 열었다. 이 자리

2023년 12월 11일 (월)

종합 03면

에서는 '여성 공천 30% 실현'을 통한 여성의 대표성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최경순 전 강원도당 여성위원장과 박윤미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이 발제에 나섰다, 정유선 여성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다. 정유선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여성들이 당당하고, 당원이 주인이 되는, 또 우리 여성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설화 ▶ 관련사진 23면

## 강원도민일보

2023 제3회 한중일 스포츠 미디어포럼

'2023 제3회 한중일 스포츠 미디어포럼'에 참석한 동북아 3개국 스포츠와 미디어 관계자들은 청소년 스포츠 교류의 지속성을 강조하면서 한중일 3국의 문화, 관광 등 각 부문에 대한 협력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동계종목뿐만 아니라 야구 등 각 종목에 대한 교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새롭게 제기, 한일 청소년 야구 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또, 한중일 3국 청소년 교류 및 우호관계는 정치·외교 문제와는 별개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한중일 교류협력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스포츠·미디어 토론회 주요 내용을 살핀다.

2023년 12월 11일 (월)

특집 21면

## “스포츠 매개 협력 강화 문화·교육·관광 교류 확대를”

스포츠 토론회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 한중일 청소년 스포츠 교류

## “청소년 시절 스포츠·문화 경험, 한중일 관계 개선 도움”

◇작장 △김기석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론 △박진우 대한체육회 생활체육본부장 △박재민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홍보대사 △백범흠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초빙교수 △심오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지원특위 위원장

공동수업·포럼 등 해외교류 정책 마련을  
올림픽유산 활용 강원 브랜드 가치 제고  
대회 관심도 저조 불협 조성 홍보 촉구

△박진우="한중일 관계는 동아시아에서 큰 축을 지니고 있다. 각 국가는 공통적인 문화가 많다. 한자와 유교, 불교, 절가락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특정 분야에서 접어들어 갈등을 빚고 있다. 하지만 스포츠만은 갈등이 없다. 공통된 규칙을 가지고 공정하게 경쟁하기에 그렇다. 동북아 스포츠 교류는 각 국가가 국교 정상화를 통해 더욱 활성화됐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 동아시아 3개 국가는 스포츠 국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청소년올림픽은 각 국가의 청소년 교류와 존중을 목적으로 한다. 한중일에 제안한다. 30여년간 한중일이 교류한 내용을 더 심도 있고 확고하게 확장해야 한다. 선수 가 아닌 일반 학생들에게도 한중일의 교류를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박재민="스노보드와 농구, 브레이크댄스 선수를 하면서 해외에서 전지훈련을 많이 했다. 선수 생활을 하며 외국을 나가보니 그때 배웠던 경험들이 평생의 가치관을 뒤흔드는 계기가 됐다. 그런 점에서 올림픽은 큰 의미가 있다. 미국 대학 농구 리그 결승전은 슈퍼볼에 버금가는 인기를 누

린다. 우리나라의 학생 스포츠 리그는 중계조차 되지 않는다. 아쉽다. 시대가 변하면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 스포츠 정책이 시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학생 스포츠는 학교가 기반이다. 학생 선수는 소속팀이 학교이다. 학생이 학교를 떠나면 시스템 등록을 못한다. 교육부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외국 학생들을 초대해 한국 스포츠를 함께 경험하고, 공동체육수업과 청소년 포럼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스포츠는 돈과 승패, 결과에서 자유롭다. 청소년들이 나중에 리더가 됐을 때 이러한 교류 경험이 있다면 한중일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백범흠="한중일 간 상호협력에 중요한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렇다면 왜 중요할까. 한중일은 모두 인구 감소로 인해 국가 존망 위기에 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 교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국과 중국은 국민들 간 혐오 감정이 강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서로를 알아야 한다. 청소년올림픽을 기반으로 교류를 활성화하는 게 가능하다.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 산다. 대외 교류가 없으면 한국은 굶어 죽는다. 올림픽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강원도는 동계올림픽에 이어 청소년올림픽을 앞두고 있다. 올림픽에서



지난 7일 강릉 씨파크호텔에서 열린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북업 및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3 한중일 스포츠 미디어 포럼에서 토론자들이 열린 토론을 벌이고 있다.

서영



박진우

박재민

백범흠

심오섭

김기석

동계스포츠 메카로 거듭나야 한다. 문화적 소통을 통해 국제관광 도시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중일이 올림픽 유산을 중심으로 합심하면 스포츠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소통, 교육을 넘어 문화와 예

사용한 시설과 자원환경을 활용해야 한다. 올림픽이 열리는 평창과 강릉, 횡성, 정선을 각 도시가 가진 특색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이번 올림픽을 통해 도시가 가진 고유한 특색을 살려 세계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강원도의 브랜드를 만들길 바란다."

△심오섭="도의회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는 올림픽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일을 한다. 아시아 최초로 열리는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전 세계 26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한다. 강원도가 명실상부 동계스포츠 도시로 거듭나는 것은 물론, 올림픽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기회이다. 강원도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유무형의 자산을 갖췄다. KTX와 고속도로가 개통해 많은 관광객이 강원도를 찾고 있다.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통해 강원도의 저력을 공유하고

술, 관광까지 교류할 수 있을 것이다."

△김기석="일본 정책을 전공했다. 과거 일본에서 지내면서 부러웠던 점은, 일본은 지금도 그렇지만 고등학교 야구 인구가 대단하다. 하지만 한국은 고교 야구의 인기가 시들해진 상황이다. 고교야구를 살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면 좋겠다. 강원대학교에 2002년 왔다. 당시 강원도는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로 결정했었다. 기억이 나는 건 당시 대회 불협이 전파되지 않았다.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에선 여전히 동계스포츠가 대중화되지 않고 있다. 동계청소년올림픽은 학생 올림픽이다 보니 스포츠 스타도 별로 없다. 대회 예산도 2018 평창올림픽과 달리 적다. 오늘 포럼에 도의회와 한중일 언론, 전문가가 참석하셨다. 대회 불협을 위해 각계각층의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정리/이설화·김덕형



## 江原日報

2023년 12월 11일 (월)

지역 11면

## / CEO 아카데미 부동산 최고 경영자 과정 /



◇강원일보 CEO 아카데미 원주권 제10기 부동산 최고 경영자 과정 수료식이 지난 7일 빌라드 아모르에서 열렸다.  
원주=신세희기자

## 부동산·재테크 전문 노하우 배워

원주권 제10기 수료식  
39명 수료패·기념품 수여  
자체 개별상 마련해 눈길

강원일보 CEO 아카데미 원주권 부동산 최고 경영자 과정 수료식이 지난 7일 빌라드아모르에서 열렸다. 황형주 강원일보 원주본부장, 김태훈 원주부시장, 이재용 원주시의장, 박길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 손준기·김혁성 시의원, 권오광 도경제진흥원장, 유종우 시노인회장, 원은향 시여

성단체협의회장, 이강모 시정자문위원장을 비롯, 각 기수 회장단 등이 참석해 14주간의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친 수강생들을 축하했다.

수강생 39명에게는 수료패와 기념품이 수여됐다. 특히 출석률 100%를 달성한 김옥순 다경뷰티 대표, 김희영 컴포즈 원주단구롯데시네마점·더벤티 단구점 대표, 박배준 박배준안경원 대표는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수강생들이 자체적으로 개별상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긍정의 아이콘상 박미란, 값진 참석상 최희영, 온화한 손길상 허경옥, 눈부신 햇살상 김다경, 높은 곳의 열정과 목소리상 한은주, 신사의 품격상 김희영, 전문가의 포스·포토제닉상 장희봉, 듬직한 누나상 황영순, 은둔의 고수상 채순이, 완벽한 모델상 김청숙, 잘 챙기는 동네형상 김동훈, 화목한 미소상 김미영, 듬직한 귀요미상 장영덕, 최선을 다한 웃음상 이상민, 확실한 깃발상 정효원 등이다.

원주=김설영기자 snow0@

## 江原日報

2023년 12월 11일 (월)

지역 10면



**춘천시청 성수동문 송년의 밤** 2023년 춘천시청 성수동문 송년의 밤 행사가 지난 8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육동한 춘천시장, 김희철 도의원, 고광만 춘천상공회의소 회장, 김보건 춘천시의원, 이강균 춘천시체육회장, 이필영 춘천향교 이사장 등 동문 및 내빈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11일 (월)

종합 04면

## 오늘 양양서 청년과 함께하는 강원농업 미래 워크숍

강원특별자치도가 마련한 '청년과 스마트가 함께하는 강원 농업의 미래 워크숍'이 11일 쓸비치양양에서 열린다.

'강원농업의 성장혁신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실현'을 주제로 마련된 이번 워크숍에는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김용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다. 최태영 농정과장의 강원 미래농정 2040 발표를 시작으로 전국 9개도를 제치고 최종 공모 선정된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 평창·태백등 스마트팜 우수사례, 강원 과수다축형 평면수형 기반 스마트팜 조성사례를 공유하고, 강원 미래 농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강원농촌융복합센터 주관으로 미래농정거버넌스 사업의 결과보고도 함께 한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비해 스마트농업과 그린바이오 등 농업분야의 새로운 이슈에 대해 이해하고 미래 강원농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덕형



江原日報

2023년 12월 11일 (월)

인물 21면



◇지난 8일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서 열린 회장 이·취임식에서 이돈섭 이임회장이 김선배 신임회장에게 지사기를 이양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돈섭 이임회장, 김철수 중앙회장, 김선배 신임회장  
신세희기자 and8729@kwnews.co.kr

## “하심공경 자세로 이웃 섬길 것”

〈下心恭敬〉

김선배 강원적십자사 회장 취임 ... 3년 임기

이돈섭 전 회장 이임 ... 김 지사 등 100여명 참석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8일 ‘대한적십자사 강원자치도지사 제31·32대 이돈섭 회장 이임식 및 33대 김선배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육동한 춘천시장, 박기영 강원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김진호 춘천시의회장, 이주한 춘천교대총장, 고광만 춘천상공회의소 회장, 이금선 강원경제인단체연합회 회장 등 내외

빈과 대한적십자사 소속 봉사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선배 신임 회장은 “무위당 장일순 선생의 ‘하심공경(下心恭敬)’의 자세로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대한적십자사 강원자치도지사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 회장은 2026년 12월9일까지 3년간 임기를 맡는다.

김진태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도 대한적십자사 강원자치도지사 예산에 2억원을 추가 편성했다”며 “강원자

치도민을 위한 사랑과 봉사에 앞장서는 대한적십자사 강원자치도지사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임한 이돈섭 전 회장은 적십자 ‘광무장’과 전국지사회장협의회 ‘가장 명예로운 상’을 받았다.

이 전 회장은 “6년간의 임기 동안 적십자 인도주의를 빛내며 활동해주신 모든 직원들과 봉사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임기가 끝난 후에도 대한적십자사 강원자치도지사의 무궁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돕겠다”고 말했다.

김준겸기자 lean@

#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08일 (금)

사회

##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회장 이·취 임식 실시



▲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8일 오후 2시 지사 강당에서 제31·32대 회장 이임식 및 제33대 회장 취임식을 개최한 가운데 이돈섭 회장이 이임하고 김선배 회장이 취임했다.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8일 오후 2시 지사 강당에서 제31·32대 회장 이임식 및 제33대 회장 취임식을 개최한 가운데 이돈섭 회장이 이임하고 김선배 회장이 취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김진태 도지사, 박기영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육동한 춘천시장, 김진호 춘천시의회 의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이주한 춘천교대총장, 고광만 춘천상공회의소 회장, 이금선 강원경제인단체연합회 회장 등이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돈섭 강원적십자사 제31·32대 회장은 2017년 강원지사 회장으로 취임하여 6년간 강원지사를 이끌어왔다. 이돈섭 회장은 "6년간의 임기 동안 인도주의를 빛내며 활동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제 회장직을 내려놓지만, 강원적십자사가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8일 오후 2시 지사 강당에서 제31·32대 회장 이임식 및 제33대 회장 취임식을 개최한 가운데 이돈섭 회장이 이임하고 김선배 회장이 취임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강원적십자사 예산 편성에서도 2억을 추가한 만큼 앞으로도 모든 힘을 다해 강원적십자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육동한 춘천시장은 "우리 사회에 그들이 아직도 많고 점점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적십자사의 노력자가 돼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선배 강원적십자사 제33대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장일순 선생의 하심공경의 뜻대로 스스로를 낮추고 이웃을 잘 섬기는 자세로 모든 도민들을 섬기는 강원적십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김선배 회장은 오는 10일부터 임기가 시작해 2026년 12월 9일까지 3년간 지사회장을 역임하게 된다.



**江原日報**

2023년 12월 09일 (토)

정치

## 2023 춘천 야구인의 밤 및 호반리그 시상식 성 황



2023 춘천 야구인의 밤 및 호반리그 시상식이 지난 8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동호인 및 가족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육동한 춘천시장, 허영(춘천갑)국회의원, 노용호 의원(비례·국민의힘 춘천갑당협위원장), 김진호 춘천시의장, 박찬흥 도의원, 김보건·김용갑 춘천시의원, 이강균 춘천시체육회장 등 내빈을 포함한 130여명이 참석하거나 축하 영상 등을 보내온 가운데 열렸다. 사진은 육동한 시장이 축하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 江原日報

2023년 12월 10일 (일)

종합

##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용복(고성)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은 11일 오후 1시30분 양양 쓸비치 1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청년과 스마트가 함께하는 강원 농업의 미래 워크숍에 참석.

진종호(양양) 도의원은 11일 오후 2시30분 속초 마레몬스 호텔에서 열리는 2023년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성과 나눔 공유회에 참석.

##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11일 (월)



이병선(왼쪽) 속초시장·진종호(양양) 도의원은 11일 오후 2시 30분 마레몬스 호텔에서 열리는 더나은

인물동정 15면  
교육지구 성과나눔공  
유회에 참석한다.

## 江原日報

2023년 12월 11일 (월)

인물동정 21면  
◇김용복(고성)도의회 농림수



산위원장은 11일 오후 1시30분 양양 쓸비치에서 열리는 청년과 스마트가 함께하는 강원 농업의 미래 워크숍에 참석.



##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11일 (월)

종합 01면

## 특별 자치시·도 곳곳 출범...특별한 강원 실종 우려

최근 국회 중부내륙법 통과  
 사실상 충청권 메가시티 근거  
 전북특별법 개정안도 가결  
 강원보다 실질적 내용 포함

전국 광역자치체의 메가시티 조성, 특별자치시·도 설치와 관련된 법안이 봇물을 이루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차별성에 대한 동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중부내륙법)'이 가결됐다. 중부내륙법은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에 대한 체계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각각 발전종합계획과 자연환경의 보전·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다.

중부내륙법은 충남·북과 전북·경북·경기·강원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사실상 충청권 특별법이다. 이 법은 향후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추진 중인 충청권 메가시티의 관련 근거가 될 전망이다.

전북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 전북은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한다. 이로써 전북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4번째로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 전북특별법

개정안은 법 제정 당시 28개였던 조문 수가 확대, 농생명,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과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특구 등 131개 조문이 담겼다.

전북특별법은 강원특별법 개정안과 비교, 보다 실질적인 내용으로 채워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을 비롯 관광 진흥 및 국제회의 육성, 출입국관리법 특례 등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연동된 특례가 다수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강원특별법은 국제학교 설립 특례가 제외됐으나 전북은 국제K팝 학교 설립

근거를 담았다.

이로 인해 강원특별법은 규제 완화 중심의 명분과 형식논리에 치중, 주민 피부에 와닿는 특례가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향후 3차 후속개정에 보다 강력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치분권 전문가 그룹은 "수도권·비수도권 광역자치체들이 메가시티 연대, 특별자치시·도 형태의 특별법 입법에 나선만큼 후속개정에 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보다 구체적인 특례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했다. 박지은·김덕형 ▶관련기사 3면

江原日報

2023년 12월 11일 (월)

종합 01면

# ‘불황의 덫’ 개인도 지자체도 빚더미

## 고금리·고물가에 신음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에 실물경제가 악화되면서 개인과 지방자치단체 모두 빚더미에 깔리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채무액은 최근 4년간 1,595억원이 증가했고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서민들도 급증하고 있다.

■강원 지방채무총액 4년간 1,595억원 증가=강원특별자치도 본청이 보유한 지방채무 총액이 최근 4년간 1,600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도 지방채무총액 4년간 1,595억 급증... 이자 부담 가중  
아파트 경매도 전년 대비 75% 쯤증... 유찰 함께 늘어나

‘전국 지방자치단체 채무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강원도(본청)의 채무액 규모는 1조1,58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예산(9조5,052억원) 대비 채무비율은 12.18%였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20.15%), 대구(18.91%), 울산(17.56%), 부산(17.55%), 광주(17.19%), 세종(14.45%), 제주(14.28%)에 이어 여덟 번째로 높은 수치다.

지방채무는 지방채와 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부담행위 이행책임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도의 채무액은 2019년 9,986억원에서 2020년 1조434억원, 2021년 1조1,646억원으로 뛰었다. 2022년(1조1,581억원) 소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4년간 증가액은 1,595억원에 달했다. 연평균 채무 증가율은 5.06% 수준이다.

문제는 고금리 기조에 따라 지자체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확인 결과, 도가 발행하는 ‘강원지역개발채권’의 표면금리는 지난해

12월 발행분까지만 해도 1.05% 수준이었으나 올해 들어 2.5%로 2배 이상 높아졌다.

■고금리에 1년 새 아파트 경매 건수 75% 급증=지난달 강원특별자치도 내 아파트 경매 건수가 70% 넘게 늘어났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 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3년 11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달 강원자치도 내 아파트 경매는 105건으로 집계됐다. 전월(97건) 대비 8.2%, 전년 동월(60건)과 비교하면 무려 75.0% 증가한 수치다.

김현아·이규호·장현정기자

2면에 계속

江原日報

2023년 12월 11일 (월)

종합 02면

‘불황의 덫’ 개인도 지자체도 빚더미 -1면에서 계속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이자 부담이 눈덩이로 불어나고, 이에 따라 아파트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신규 경매와 유찰이 동시에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이처럼 경매 물량이 쌓이면서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전달보다 4.2%포인트 떨어진 82.2%를 기록해 한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고금리 영향으로 이자 부담이 커져 신규 경매와 유찰이 동시에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고금리 기조는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어서 경매 물건도 앞으로 더 쌓일 우려가 있다”고 했다.



##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11일 (월)

지역 08면

## “춘천지역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늘려야”

고령운전자 안전교육 시행 등  
시의회 추가 교통안전책 촉구  
시 “실무협 확대 가능성 검토”

속보=최근 80대 운전자의 과속 신호 위반으로 보행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 춘천시가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본지 12월 7일자 5면)한 가운데 춘천시의회에서도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김운기 시의회 경제도시위원장은 최근 열린 제330회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후 사고 발생 건수는 54%, 사망 건수 77% 감소한다는 통계가 있다”며 “관련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춘천시는 최근 퇴계동 일원에서 춘천경찰서,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모범운전자회와 합동으로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했다.

윤민섭 시의원도 춘천시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에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를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춘천시는 유관기관과 다각도로 협의해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가능성을 따져 본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교통공단과 교통안전공단 중 어느 기관이 체험교육을 맡을 여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예산이 수반되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와 관련해서는 춘천시 교통시설팀이 종합 계획을 세워 보완할 예정이다. 교통시설팀은 교통안전공단·춘천경찰서와 꾸린 교통안전 실무협의체를 가동, 사고가 났던 구간을 포함하는 영서로 축(태백삼거리~소양2교 앞 호반사거리)을 합동 점검하고, 보완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춘천시도 캠페인을 벌이는 등 시민 인식 개선에 나섰다. 지난 8일 오전 8시부터 춘천시는 춘천경찰서·모범운전자회 춘천지회·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와 손잡고 퇴계동 일원에서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들은 현수막을 걸고, 보행자에 홍보물을 배포해 면허증 사진 반납 제도와 안전 보행 3원칙(서다·보다·걷다)을 알렸다. 김현경

##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11일 (월)

지역 09면

## 원주푸드 인증 축산물·가공품 확대 나선다

시,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차 농산물 제한 활용 한계  
축산물 안전성 증진 소득 증대

원주푸드 인증 범위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원주푸드 인증은 지역의 신선한 농산물을 안전하게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1차 농산물에 한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상이

1차 농산물로 너무 제한적이어서 원주푸드 홍보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 지역 축산물, 농축산물 가공품 등이 원주푸드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원주푸드의 활용도,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 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원주푸드 인증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주푸드 인증 범위를 1차

농산물에서 축산물, 가공식품까지 확장토록 명시했다.

확장된 원주푸드를 학교 급식 등에 공급, 공공 급식의 위해요소를 폭넓게 차단해 안전성을 증진하고 지역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판로 확대로 지역 농업인 소득을 증대시키자는 취지다.

또 이처럼 새롭게 변화되는 원주푸드 인증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에 맞는 인증기

준을 신설하고 관련 서식 등을 변경토록 했다. 여기에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한 가공식품,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등 새롭게 포함되는 농산가공품 제조, 생산업소의 자격 및 생산환경도 정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 후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2월쯤 시 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되며, 통과되면 즉시 시행된다.

정태욱 tae92@kado.net



## 江原日報

2023년 12월 11일 (월)

종합 02면

## 강릉·삼척·화천에 공공임대주택 250세대 건립

입암·도계·신읍지구 사업대상지 선정

강릉 입암, 삼척 도계, 화천 신읍지구 3곳에 공공임대주택 250세대가 건립된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협의회'는 강릉 입암지구(80세대), 삼척 도계지구(120세대), 화천 신읍지구(50세대) 등 강원지역 3곳과 경기 안양, 경남 하동을 공공임대주택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협의회는 수요, 교통, 편의성 등을

종합 검토했으며 강원자치도가 신청한 강릉, 삼척, 화천 3곳 모두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는 시·군과 함께 청년층 등 주거 필요계층을 위해 '강원형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선정된 강릉, 삼척, 화천 3곳을 포함해 도내 총 19곳 1,702세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영월 덕포지구(102세대), 홍천 북방지구(80세대), 태백 황지

지구(100세대), 정선 남면지구(70세대) 등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 수요자 관점에서 입주자격 및 임대료 체계 등의 확인이 간편하도록 개선한 사업이다.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부과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입주가능 면적이 제한돼있다.

입주자격은 중위소득 150~180% 이하, 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공급면적 33평), 임대기간은 30년이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11일 (월)

종합 04면

## 가을부터 오락가락... 12월 때아닌 봄 날씨 '이상기후' 실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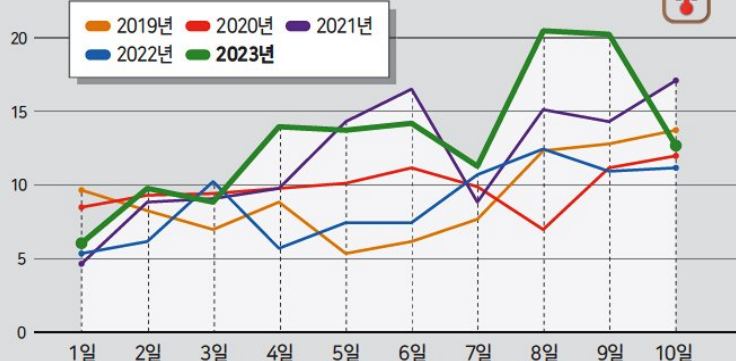
9월 평균기온 20.8도 역대 1위

도내 곳곳 포근... 주말부터 추워져

올 가을철 강원도내 평균기온이 역대 두번째로 높고 11월 내기온차가 20도 이상 나는 가운데 12월임에도 봄 날씨가 나타나는 등 기후 변화가 일상에서 크게 느껴지고 있다.

10일 강원도내 주요지점의 낮 최고기온은 원주 16.6도, 영월 16.2도, 동해 14.2도, 춘천 14.1도, 홍천 13.3도, 강릉 12.7도, 속초 11.3도 등을 기록하며 평년(1~9도)보다는 3~8도 높게 나타났다. 강원기상청은 이처럼 도내 곳곳의 낮 최고기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남쪽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다"며 "오는 16일부터는 다시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고 설명했다.

2019~2023년 12월 1~10일 강릉 낮 최고기온



이상기후는 이번 가을(9월~11월) 내내 이어졌다. 강원지방기상청이 최근 발표한 2023년 가을철 강원도 기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23년 가을철(9~11월) 도내 평균기온은 13.2도로 1973년 기상관측 이래 두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9월에는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한 남풍이 불어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9월 평균기온(20.8도), 최고기온(25.7도), 최저기온(17.2도) 모두 역대 가장 높았던 것으로 기록됐다.

박훈 강원기상청장은 "초가을 기온이 역대 1위를 기록하고 늦가을에는 기온변동이 매우 커 기후변화를 실감한 가을철이었다"고 말했다. 김정호



##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11일 (월)

사설/칼럼 17면

## 춘천 주요 현안 연내 마무리해야

-GTX-B연장·기업혁신파크 총선 후 지연 안돼

강원특별자치도 수부 도시인 춘천지역의 주요 현안을 연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망 확충과 공공기관 이전 등 숙원사업에 대한 정부 결정이 총선 이후로 미뤄지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민들은 이들 현안이 선거용 단골 공약이 되지 않도록 조기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부는 사업이 연내에 결정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합니다. 정치권도 시민의 염원에 부응해 여야를 떠나 기민하게 대응하기를 기대합니다.

시급히 결정해야 할 사안은 GTX-B 춘천 연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이 사업은, 춘천을 비롯한 영서 북부지역의 수도권 접근성을 강화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연장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GTX-A는 팽택, B는 춘천, C는 천안·아산까지 확장할 계획이라며 노선 연장을 공식화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도 기존 GTX 노선의 연장 방안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기업혁신파크 유치와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는 현안입니다. 국토부는 현장실사 이후 실질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조기에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 강원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은 주목할 만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과 국민의힘 노용호(춘천·철원·화천·양구 갑 당협위원장) 의원은 지난 5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속한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GTX-B 춘천 연장 사업과 관련한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부처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원 장관과 면담을 갖고 오는 기업혁신파크 춘천 유치 및 춘천 지역 교통망 개선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기업혁신파크와 GTX-B 춘천 연장은 춘천의 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입니다. 또한 경제 파급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사업은 춘천뿐만 아니라 강원 영서 북부 지역 발전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특히 교통망 확충은 수도권 시민들의 불편도 해소하는 정책입니다. 행여 내년 총선에서 다시 공약으로 등장하는 일이 없도록 연내 확정을 기대합니다.

##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11일 (월)

사설/칼럼 17면

## 자살사망률 3위 안전망 강화를

-실직률 높은 시기 남성 더 위험...정신보건 정책 다각적이어야

연간 국내 자살 사망수가 1만3000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강원은 연간 500여 명이 생명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인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중소도시로 이뤄진 강원도 시도 자살사망률 상위여섯 관심이 요청됩니다. 강원도는 2018년 갑작스럽게 사망자 37명이 더 늘어난 이후 500명대 선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어 예방 정책을 종합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살은 중소도시보다는 주변 친밀도나 소통이 더 힘든 대도시가 많은데 강원도가 3위여서 사회환경적 요인을 더 주목하게 됩니다. 도내 2017년 자살사망자는 470명이었으나 2018년 507명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2019년과 2020년은 각각 509명과 508명이었습니다. 원주가 123명으로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춘천 85명 강릉 56명 순입니다. 인구 대비 자살률은 횡성, 정선, 고성, 고성이 높으므로 세밀하게 짚어야 합니다.

표준인구로 바꿔 전국 시도를 비교한 결과 강원도는 32.7명으로 전국 평균 26명을 크게 웃돕니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 45.4명, 여성이 19.9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2배 높게 나타나므로

유의해 살펴야 할 것입니다. 119 등 각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직과 무직상태로 경제 여건이 열악하고 독거남성 및 고령자 희생이 두드러집니다.

자살 위험은 통상적인 소통으로도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 보고입니다. 남성은 여성보다 감정 표현에 익숙지 않은 점과 외부소통을 통해 해소하기 어려운 환경이 더 정신적 심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주요 시를 제외하고는 정신보건과를 운영하는 병원이 없어 진료상담을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용이 쉽지 않은 점도 요인을 보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 정신보건센터 사례 상담 등 복지서비스는 더 활성화돼야 하고, 주기적인 생명보호 캠페인과 기관 간 협력으로 사회환경적 요인을 지속해서 개선해야 합니다. 마을공동체사업에 자살예방은 필수 포함하도록 하고, 열악한 곳은 맞춤형 사업을 통해 문제점 발견 보완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자살은 본인뿐만 아니라 유족들에게 치명타를 주는 사회문제입니다. 전반적으로 의료 환경이 열악해 정신건강은 뒤쳐질 수 있습니다. 자칫 실직이 생명 희생으로 번지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강화는 다각적이어야 합니다.



## 江原日報

2023년 12월 11일 (월)

사설/칼럼 19면

## 탄광 문 닫는 태백·삼척,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2024년 6월 태백 장성광업소, 2025년 6월 삼척 도계광업소 폐광을 앞두고 강원특별자치도가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태백과 삼척은 대표적인 폐광지역이다. 폐광지역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의 전초기지였지만 안타깝게도 1980년대 후반 정부의 석탄 산업합리화정책 이후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1995년)'이 제정된 지 30년이 돼 가지만 아직도 침체의 늪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소멸의 위기까지 맞고 있다. '폐특법' 연장으로 특별법의 영구성을 갖기는 했지만 지역경제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에 지역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장성광업소와 삼척 도계광업소 등이 단계별 조기 폐광을 눈앞에 두고 있다. 폐광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마땅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강원자치도가 실시한 '탄광지역 폐광대응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25년 폐광 시 삼척시의 피해 규모는 5조6,000억원, 태백시의 피해 규모는 3조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삼척 도계읍에 가장 많은 5조3,000억원의 피해가 집중되고 태백 장성동의 피해도 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태백 지역내총생산(GRDP)의 13.6%, 삼척은 9.6%가 증발하는 셈이다. 또 태백에서는 876명(장성동 722명), 삼척 1,685명(도계읍 1,603명)의 대량 실업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 장성광업소·2025년 도계광업소 폐업  
지역 피해 9조원에 대량 실업 발생 예측돼  
정부, 폐광지역 지원 필요성 인정해야 마땅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지역고용노동청의 검토와 도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친다. 신청이 완료되면 정부는 조사단을 꾸려 현장 실사를 통해 고용위기지역을 지정·고시한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시 구직급여, 생활안정자금(생계비), 전직·창업 지원, 고용촉진지원금, 맞춤형 일자리사업 등 연간 최대 300억여원 규모의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고용위기지역은 2년간 유지되며, 1년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2018

년 조선업 장기 침체로 대량 실업이 발생한 경남 거제, 통영, 고성, 울산 동구 등 4개 지역과 GM공장, STX조선해양 구조조정으로 전북 군산, 창원 진해구가 지

정된 바 있다. 현재는 거제시 1곳만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폐광지의 지원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지정될 전망이다.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체 산업이 없는 태백과 삼척의 시민들은 이대로라면 심각한 고용위기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는 양 지역에 대해 마땅히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경제난에 취업난까지 더해지면 지역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된다. 따라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당연하고도 시급하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고 종합 취업지원 대책을 세워 실업 예방·고용 촉진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정부가 주민들의 '희망'을 외면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 江原日報

2023년 12월 11일 (월)

사설/칼럼 19면

## 춘천시-6개 대학 '교육특구' 구성에 거는 기대

춘천시와 지역 6개 대학 총장들이 최근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학도시 정책협의회를 열어 교육발전특구, 글로벌대학 추진, 고교학점제 등 내년도 협력 안건을 논의한 것이 주목을 받고 있다. 대학도시 정책협의회는 시와 강원대, 한림대, 춘천교대, 한림성심대, 송곡대, 한국폴리텍Ⅲ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우수 인재 양성, 취업 및 창업 활성화, 지역 정주여건 확충 등 지역과 대학의 협업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어 기대를 모으게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단연 교육발전특구 지정이 화두로 꼽혔다. 대학들은 대학별 특화과정 학점제 운영, 지역인재전형 유연화 등의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향후 교육발전특구 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이는 모두 지역 발전과 연계돼 있어 의미가 깊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춘천시와 지역의 대학들이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이끌어 낼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 같은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교육공동화를 극복하고 인구 유출을 막는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한다. 대부분의 지역이 수도권에 비해 각종 인프라가 열악해 갈수록 위축돼 왔고 근래 들어 자생력을 갖기 위

해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지역의 노력이 외형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이 정주 여건을 고루 갖추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수다.

대학들이 향후 교육발전특구 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다짐한 것은 그 시발점이다. 춘천시 역시 지역 내 6개 대학이 밀집한 점을 바탕으로 대학 역량을 활용한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올해 초 시와 6개 대학은 이미 춘천교육지원청과 함께 대학자원 공유 활성화 사업 협약을 맺었다. 이러한 환경 조성의 그 자체로도 학생들은 외지에 유학하지 않고 지역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장점과 자치 단체는 대학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특히 춘천시는 교육을 지역 발전 전략의 큰 동력으로 인식, 깊은 관심을 갖고 실천 가능한 구체적이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러나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해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 따라서 춘천시와 지역 6개 대학의 정책협의회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돼 지역 발전과 교육 문제를 풀어 가는 데 좋은 시사점이 돼야 한다.